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6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대전외국인노동자센터의 최인환 목사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사역보고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잠실 풋살 경기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이정은 씨와 이상중 씨가 7월 2일 오후 4시 안양 호계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합시다.

식 당 봉 사 : 찬양대 전원  
 7/3,10식 당 봉 사 : 박혜경 a조항미 김운정 이은주 김민화 김정우 백묘현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곽상준 김근종 이종현  
 다음 주 설거지 : 신인경 이세민 박은혜 강지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땀별에 만난 나무그늘처럼, 우중(雨中)에 만난 처마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음자리 하나 늘 비워두고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60여 년 동안 분단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허리를 휘감은 녹슨 철조망 다 걷어주시고, 이 백성 마음속 골 깊은 상처 다 치유해 주십시오. 부둥켜안고 눈물 흘리던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남과 북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된 모습을 회복해 참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40:30,31 ..... 인도자
- ♠ 교 독 문 ..... 103. 나라사랑(5)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392. 주여 어린 사슴이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렘29:4-14 ..... 최희영 선생  
 II. 마5:21-24 ..... 조관행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찬양대
- 말 씬 ..... I. 칠십 년을 채우고 나면 ..... 이성운전도사  
 II. 화해가 먼저다 .....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 다함께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윤정덕 구성실 권미숙 김경연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광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영희 오자영 장대호 한숙경 최종원 한상경  
 이우원 옥귀희 이광용 형인순 광새롬 장원호 박성희 허호범 박성실  
 최재욱 이수정 무명

### 월정헌금: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송임희 이은자 정완수 김재광 하정석 이명희  
 황경순 황원순 변재민 이소혜 황자순 장동훈 정은선 이준림 홍복선  
 이주을

### 감사헌금:

박소진 이유일 김미희 송임희 최선미 정경례 김필순 전 용 이우원  
 옥귀희 무명9

### 녹색꿈헌금:

김준우 우순덕 백성래

### 생일감사헌금:

김근종 정옥영 박병구 김정애 무명

	장 해 숙	백 해 숙	송 임 회	박 영 희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배 부 례
	임 정 자	최 경 미	이 재 문	최 경 미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이 명 희
	안 정 숙	진 정 숙	안 정 숙	문 금 석
	박 흥 재	곽 권 희	곽 권 희	김 순 복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박 효 선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김 금 순
	이 형 숙	권 미 숙	임 영 선	이 형 숙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오 현 정
	정 영 선	이 현 숙	한 숙 경	송 양 진
	이 영 란	박 미 영	유 혜 경	윤 정 화
	박 해 경	조 향 미	임 창 선	이 기 분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 평화

김형영

단칸짜리 방이나마 도배를 하고  
 방바닥에 큰대(大)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날이여,  
 이렇게 마음 편할 줄이야  
 평화가 거기 숨어 있을 줄이야

소박하지만 평온한 느낌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입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과 포도를 그 누구에게 빼앗길 염려 없이 먹는 것이 평화라 했습니다. 그런 평화의 날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581.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화해를 위해 힘쓰며 사십시오. 거친 말과 표정을 버리고 살리는 말과 미소를 전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화해의 사명을 생각지도 못한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늘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재흥 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최인환 목사	시편을 거닐다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박영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조지연 선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문영혜 권사

6월	영접위원	방문성 홍순구 권혁순 안홍숙 이증자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일곱 금단지

황실 이발사가 유령 불은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다. “황금 단지 일곱 단지 갖고 싶지 그렇지?” 이발사는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안 보이자, 욕심이 일어 간절히 외쳤다. “예, 그럼요, 갖고 싶고 말고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봐. 가보면 있을 테니까.”

단숨에 이발사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단지 일곱 개가 있고, 모두 금돈이 가득했다 - 아니, 그중 하나만은 반만 찼다. 이발사는 반만 찬 단지를 생각하면 마저 채우고 싶은 충동을 견잡을 수 없이 느꼈다. 그걸 가득 채워 놓기 전에는 도무지 행복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이발사는 자기 집 패물류를 모조리 금돈으로 바꾸어다 반만 찬 단지에 쏟아 넣었다. - 그러나 반 단지뿐이기는 매양 한가지였다. 이런 분통 터질 노릇이 있다! 이발사는 저축하고, 절약하고, 자기 자신과 식구들의 허리띠를 졸라댔다. 그러나 일껏 애써 봐야 내내 헛일, 아무리 금돈을 갖다 넣어도 단지는 그저 반 단지였다.

이제 이발사는 임금님께 봉급을 올려 주십사고 간청했다. 봉급이 배로 올랐고, 또다시 단지 채우기 싸움이 이어졌다. 나중에는 동냥질마저 나섰다. 그래도 금단지는 금돈을 넣는 족족 삼켜 버릴 뿐, 고집불통인 양 반만이기는 끝내 매일반이었다.

이발사의 궁상맞은 꼴이 임금님 눈에도 띄었다. “무슨 좋잖은 일이라도 있느냐? 봉급이 적을 적에는 그다지도 행복하고 흡족한 기색이더니, 봉급이 두 배가 된 이제는 도리어 맥이 빠진 꼴이로구나. 혹시 일곱 금단지를 가진 게 아니냐?” 이발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구한테 들으셨나옵니까, 폐하?” 임금님이 껄껄 웃었다. “요즘 네 행색이 영락없이 금단지 받은 자의 증상 그대로구나. 나도 그걸 받은 적이 있었더니라. 그 때 난 그 돈을 내가 써도 좋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만 저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는데, 그랬더니 유령은 두말없이 사라져 버리더구나.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 축적하고 싶은 충동만 부채질하는 것이야. 당장 가서 유령에게 되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니라.”

##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갓 크리스천이 된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와의 대화

“그래, 자네 크리스천이 됐는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관해 꽤 알겠군. 어디 좀 들어 보세 :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는걸.”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지?”

“모르겠네.”

“설교는 몇 차례나 했나?”

“몰라.”

“아니, 크리스천이 됐다면서, 정작 그리스도에 관해 별로 아는 게 없잖아.”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너무 적어 부끄럽구먼. 하지만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지 : 3년 전에 나는 주정뱅이였고, 빛을 지고 있었어.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돌아오는 걸 무서워하고 있었던 걸세. 그러나 인젠 난 술을 끊었고, 빛도 다 갚았다네.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야.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됐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걸세. 이만큼은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네!”

알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